

장애인과 일터

Vol.335

2023 March
KEAD Monthly Magazine

파릇파릇, 설레는 변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March Vol.335

파릇파릇, 설레는 변화

삼한사온(三寒四溫)의 계절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움을
틔우려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까 말까 망설이는 때이기도 하지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도전의 시기를 고르는 것, 새순도 우리들도
봄을 맞이할 때 느끼는 설렘의 순간입니다. 파릇파릇한 새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파릇파릇, 설레는 변화
- 04 **생각 더하기**
내가 케냐에서 복지사가 되기까지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장애인 용어 바로 쓰기
- 10 **일터 트렌드**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저의 첼로 연주로 모두에게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 16 **함께하는 일터**
“평소 관심 있던 회사에 다니게 돼서 매일이 보람칩니다.”
- 20 **우리는 KEAD**
“한 땀의 정성이라면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 24 **KEAD 포커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 합동훈련 현장
- 28 **세기는 지금**
개인예산제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립전환 대안을 찾아서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홈트가 더 재미있어지는 ‘운동구독 서비스’
- 34 **배리어프리 여행**
열린관광지, 용인 한국민속촌
- 36 **고민톡 상담톡**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톤**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청각장애인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파릇파릇, 설레는 변화

도전과 변화, 첫 번째 펭귄처럼

어느 날, 낯선 골목에서 '첫 번째 펭귄처럼(The First Penguin)'이라는 카페의 간판을 보았습니다. 카페 이름에 호기심이 돋은 필자는 카페 밖에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조용한 카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보이는 스터디카페 콘셉트인 것 같았어요.

문득, 첫 번째 펭귄이라는 카페명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어였지요. 그 의미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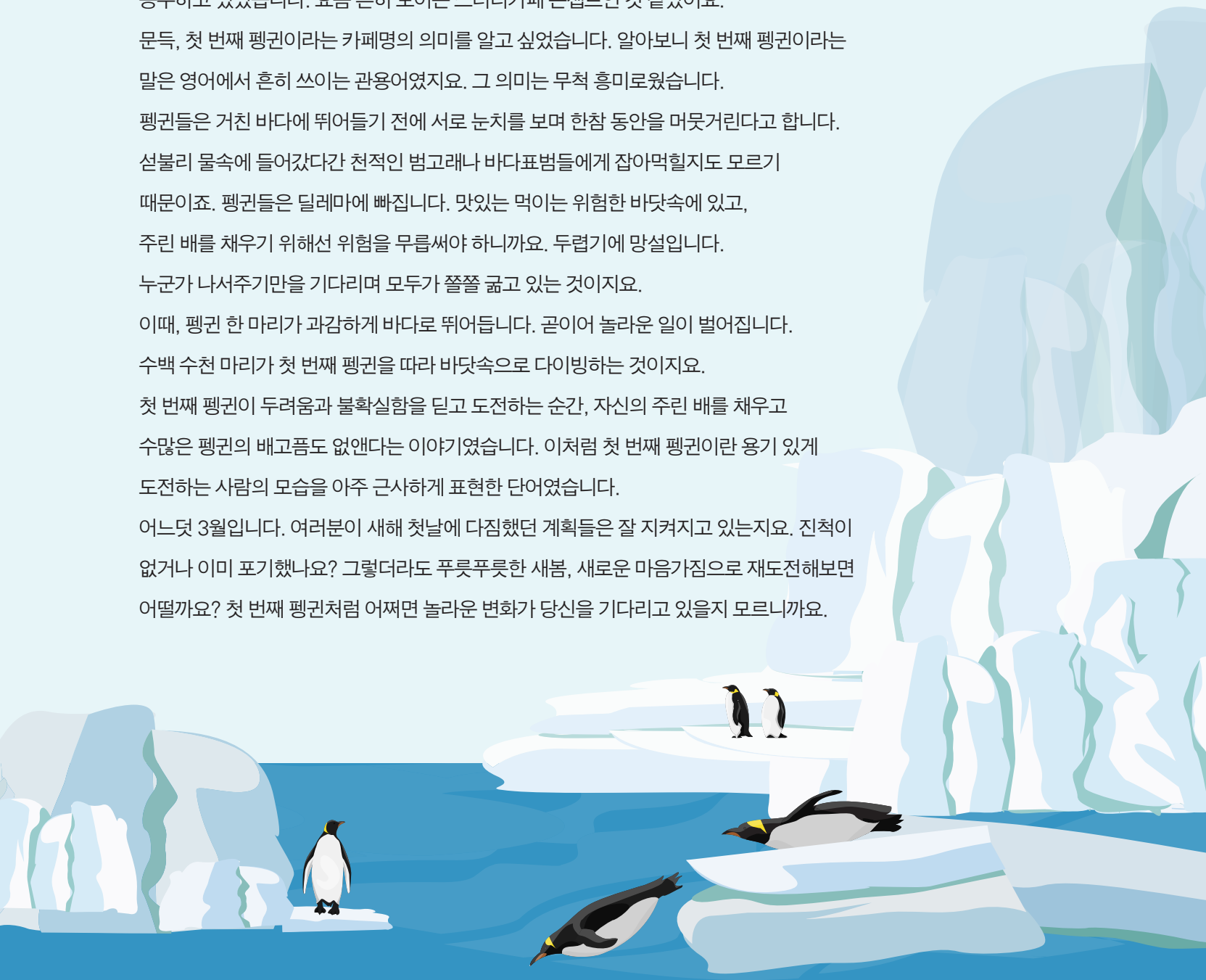
펭귄들은 거친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서로 눈치를 보며 한참 동안을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선불리 물속에 들어갔다간 천적인 범고래나 바다표범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펭귄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맛있는 먹이는 위험한 바닷속에 있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써야 하니까요. 두렵기에 망설입니다.

누군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모두가 쭈뼛 굶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펭귄 한 마리가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첫 번째 펭귄을 따라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펭귄이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딛고 도전하는 순간,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고 수많은 펭귄의 배고픔도 없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펭귄이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근사하게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첫날에 다짐했던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진척이 없거나 이미 포기했나요? 그렇더라도 푸릇푸릇한 새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펭귄처럼 어쩌면 놀라운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내가 케냐에서 복지사가 되기까지 도전과 변화의 여정

글 김해영 국제사회복지사(지체장애)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도전의 결과들

‘국제사회복지사’ 필자의 직업 타이틀이다.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이 직업 명칭을 사용하는 이는 필자가 처음이다.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 및 프로그램 개발이 주 전공인 것도 있지만, 나고 자란 한국도 아니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미국도 아닌 아프리카에서 일하니 마땅하게 국제사회복지사이다.

“아유, 그거 자격증 있는 거예요?” 하고 누가 묻는다면, “아니요. 아직 국제사회복지학 관련 자격시험이나증을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답한다. 국제사회복지사는 살아온 현장 경력이 자격증이란 뜻이다. 이 일을 하려면 기본은 제2, 혹은 제3의 외국어를 수준 이상으로 구사해야 하고, 여기에 일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은 일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살아보아야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는 1990년에 처음 남부 아프리카인 보츠와나로 자원봉사자로 갔다. 그곳에서 만 14년을 살면서 직업학교 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일했다. 이후, 7년간 미국 뉴욕에서 사회복지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2012년부터는 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케냐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국제개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만 32년에 걸친 필자의 국제 개발 현장 경력을 요약하고 보니 필자가 생각해도 국제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아프리카권에서만 보낸 세월이 만 23년이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어디를 가도 겁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도전이 가져온 국제사회복지사로서의 변화의 결과는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길게 오랜 세월을 통해 천천히 드러났다.

“아유,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처음 아프리카로 떠날 때, ‘아, 나는 국제사회복지사가 되어야지’하는 생각은 없었다. 정말이지 아프리카에서 머물며 이토록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대학 입시를 2년 연속 떨어지고 그 실패감을 씻기 위해 먼 나라로 무작정 도망간 것이 사실이었다. ‘일 년 정도 자원봉사하고 오자’했다. 그러나 십 대 시절의 나는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와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출전해 기계편물 부문에서 금메달을 땀다. 그러한 경력을 두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나라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다. 남들 눈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자 ‘잘못된 결정’ 혹은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비쳤다.

세월이 흐르자 그런 말들은 쏙 들어갔다. 나는 ‘만 14년 무보수 자원봉사’한 것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고, 미국의 대학과 명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할 기회도 얻었다. 그 결과로 현재 다양한 국제개발 현장을 누비고 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른 말로는 수많은 도전을 무작정 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도전할 때마다 주변 반응은 늘 뻔했다. “아유,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열일곱 살 나이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첫 출전하고 그 후, 연속으로 7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도 계속 들었던 말이다. “네 나이가 얼마인데?” 마흔을 앞둔 나이에 거의 무일푼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와 50대 초반 박사 공부를 위해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들었던 말이다. 형편을 기준으로 인생을 재는 사람들의 쓴소리도 들었다. “네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해?”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다

필자는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로 이번 글을 쓰면서 그동안 들었던 무수한 부정과 의심의 말들을 떠올려보았다. 그러나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나를 현혹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나답게 살아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맞아. 나는 무능력이 맞고 나이에 안 맞게 사는 것도 맞지 뭐. 형편 따질 것 없이 나대로 살자’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레이스에서 나 자신을 제외했다. 세상에서 열외가 된다는 게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래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과감해질 수 있었다. 항상 ‘밑져야 본전’이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한다. 능력과 나이와 형편에 따라 사람을 보지 않는 세상.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 국제사회복지사로서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선 도전, 후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과감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3월은 새해 다짐했으나 느슨해진 계획을 다시금 점검하기 좋은 계절이다. 싹이 돋고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한 손에는 용기를, 다른 한 손에는 여유를 쥐고 소소한 도전과 변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공단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조승수 선임평가사
부산지역본부 취업지원부

“

도전으로 성취의
경험을 쌓아보세요

부산지역본부 판정평가팀에서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파악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저는 부산 토박이로 입사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공단과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또한, 활동적이어서 평소 도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편이죠.

직장인으로서의 첫 도전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아침 출근시간을 활용해 버스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땀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다음 도전은 ‘매일 사무실에서 10분 독서하기’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비취질까 신경이 쓰였지만, 일 년을 매진한 끝에 그 목표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뿌듯했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올해는 ‘금연’과 ‘생각 말하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연은 한 달째 유지 중입니다. 생각 말하기도 실천 중인데요. 저는 평소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의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올해는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계획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실행이니깐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연주 교사
본부 능력개발운영부

“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2월부터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15~20분 정도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일찍 출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출근하다보니 차도 덜 막히고, 아침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어요. 또 아침에 좋은 책을 읽고, 업무를 시작하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집중도가 향상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작년에 본부에 발령받고 아직 근교 탐방을 못했는데 날씨가 좋은 봄이 오면 근교 맛집도 찾아가보고 싶어요. 또 호수 공원이나 탄천도 산책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지 않는 편입니다. 단어 자체가 성공 또는 실패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도전한다’라는 다짐보다는 ‘편하게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사 취업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 시간씩 이어지는 악성민원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먼저 공감하고, 어려운 점을 규정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노력해요. 하지만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서 내 경험이 많은 선임의 조언을 얻어 극복합니다. 보람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인사를 전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힘이 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지요. 최근에는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기 일쑤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않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현재 40일째 성공 중인데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요. 뿐만 아니라 웹서핑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또 오전 시간에 카페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활기를 찾았어요. 이에 힘입어 주 1회 일기쓰기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꼭 무언가를 도전해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을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교 주임
서울북부지사 취업지원부

“
**작은 변화에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장애인 용어 바로 쓰기



차별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신이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행사장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우리와는 다른 사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머릿속에 불쑥 떠오른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하거나 도와줘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게 된다.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는 장애인에 대해 너무 몰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지금부터 몇 가지 차별용어를 알게 된다면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

글 김성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놀릴 때 하는 명칭도 주의

명칭의 '-이'나 바보의 '-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접미사로 대체로 정상적이 아니거나, 이질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붙여 쓰인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호칭으로 사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칭을 사용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있는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을 대중에 소개할 때

장애인을 소개할 때 ‘장애 때문에’, ‘장애로 인해’,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 ‘장애를 딛고’, ‘장애를 이겨내고’, 그리고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라는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는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기에 ‘투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장애 극복’은 장애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애인의 반대용어는?

한때 장애인의 반대용어로 ‘정상인’을 사용하여서 이를 개선하고자 ‘비장애인’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정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은 ‘청인’,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이라고 반대용어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대결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잠깐! 장애를 앓는다고?

장애는 질환이 아니므로 ‘앓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장애 원인은 질환이 될 수 있지만, 장애는 그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 범위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아파서 몸이 불편해도 이를 다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는 ‘장애가 있다’라고 써야 한다.

그밖에 관용적인 차별 용어

장애인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굳혀져 온 표현이라서 그대로 쓰는 차별 용어이기도 하다. ‘꿀 먹은 병어리’, ‘귀머거리 삼 년’, ‘절름발이 행정’과 같은 관용 표현(속담의 경우 관용적 표현)이 그 예다. 특히 이런 용어는 비유하기 좋아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용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꿀 먹은 병어리는 ‘가슴앓이’로, 외눈박이 시각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 잔재로 남은 차별 용어

찐빠(찐빠: ちんぱ)는 어수룩하고 지질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는 절름발이를 뜻하는 일본어 ‘찐빠(ちんぱ)’의 잔재용어다. 이것을 주로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 걷기 불편한 사람, 주로 소아마비 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지금은 뜻도 모른 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땡깡(땡깡: 텐칸てんかん)도 어린아이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 ‘땡깡 부린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땡깡도 일본어 ‘텐칸(てんかん)’의 잔재용어로 뇌전증을 뜻한다. 뇌전증의 증상과 억지를 부리며 우기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용하게 된 말이라고 하니, ‘생떼’ 또는 ‘억지’라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 나도 호텔에서 일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호텔에서 여가·힐링을 즐기는 ‘호캉스’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그중 하나가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이다. 장애인이 호텔에서 일하는 일이 드문 현실에서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자.

글 편집부

호캉스 문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다

호캉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급호텔에서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호캉스 패키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다양해졌다. 그중 ‘호텔웰컴패키지 관리원’은 호텔을 방문한 고객들이 객실 및 호텔 내부 시설을 이용할 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고객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면서 고급 집기류, 어메니티, 향기 등을 관리하고 음료제조를 담당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높여주는 직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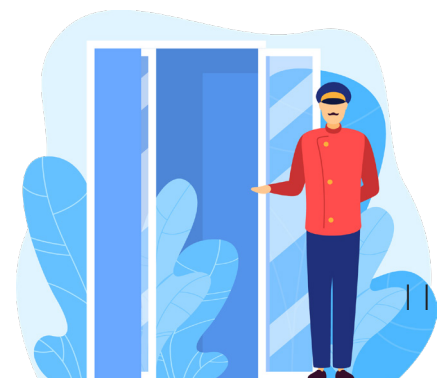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생소한 호텔 측에서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도록 직무 난이도를 세분화해 호텔 측에 제시했다. 장애인이 호텔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직무’로 설계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과 직무가 잘 맞지 않을 때는 패키지 직무 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 순환 구조’도 마련했다. 이는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찾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유명 호텔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가 하나둘 늘고 있다.

맞춤훈련센터에서 업무능력을 키우다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은 직업훈련전문기관인 인천맞춤훈련센터에서 장애인 훈련생으로 취업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5~6주간 외식경영 분야를 특화해 음료 제조 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습하고, 호텔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취업준비 기간 동안 쌓인 긴장감 해소를 위해 모래 아트 클래스 등의 심리수업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수행할 직무에 있어서 업무 완성도를 높이고 함께 근무하게 될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맞춤훈련센터에서는 대형 복합리조트업체인 제주 드림타워와 장애인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 직무를 연계했다. 이에 따라 음료 제조 및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했고 공단은 대상자를 모집해 우수한 인력을 추천했다. 여기에 뽑힌 훈련생들은 제주맞춤훈련센터에서 5~6주간 맞춤훈련과정을 마쳤으며, 그 후 제주 드림타워에 배치되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 직무는 장애인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숙박시설 업체 수는 2,372개이며 각 업체에서 1명씩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1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한다. 앞으로 호텔 뿐 아니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등의 여가산업 분야에서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면 웰컴패키지관리 직무의 확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한다.



“저의 첼로 연주로 모두에게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배범준 첼리스트

여섯 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인 ‘평화 첼리스트’가 되었다. 지적장애인인 배범준 첼리스트는 크고 작은 난관 속에서도 첼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끝없는 노력과 최선을 향한 그의 집념은 다양한 수상 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 배범준 첼리스트의 어머니인 김태영 님이 인터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단의 홍보대사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첼로를 시작했고 첼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3살 때 외부 충격으로 뇌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바이올린을 6살부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습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온 첼로 소리에 매료됐어요. 매일 첼로 연습실 앞에서 있게 됐고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첼로를 사주셨습니다. 첼로를 처음 만난 날은 너무 좋아서 첼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첼로랑 있으면 이유 없이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수상 경력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성과의 비결이 있나요?

사실 형편상 레슨을 지속해서 받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가끔 받는 레슨이 전부였죠. 그래서 수상 욕심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비장애인들과 함께한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해외 연주 기회가 왔던 적도 있었는데 참가비용 때문에 포기했었고요. 그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콩쿠르를 나갈 때마다 수상 목적보다는 가족소풍을 가듯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가끔 받는 레슨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열성으로 가르쳐주시기에 저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행운들이 자주 따랐던 것 같아요.

배명준 첼리스트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첼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는지요.

저 스스로 첼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때로는 장애인이 무슨 첼로를 연주하느냐고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연주에 몰입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연습해요. 물론 한계를 느낄 때는 많아요. 그럴 때는 ‘손가락이 길을 잃었어.’ ‘첼로야 미안해. 다시 해볼까?’하고 첼로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만약 청각장애인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연주해주고 싶은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인 바흐의 프렐류드를 들려주고 싶어요. 프렐류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서 가장 좋아해요. 예전에 청각장애인에 관해 관심을 뒀던 때가 있었어요. 수어를 검색해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또 청각장애인분들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첼로 연주를 어떻게 들려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첼로를 연주할 때 옆에서 손을 대보면 되겠다 싶었어요. 악기에서 나는 울림만으로도 음악은 전달될 수 있다고 믿어요.

배우 오정세 님과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몇 년 전, 방영했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오정세 형이 발달장애인 역할을 하셨어요. 동화작가 사인회에 서 주변의 시선에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그때 형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놀이동산에 같이 가서 그 형과 놀아줄 거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죠. 오정세 형에게 그 말이 전달돼서 진짜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오정세 형이 수상소감에서 “범준아, 놀이동산에 또 가자”라고 말했고 다시 만나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형은 제 개인적인 일에도 직접 찾아올 만큼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를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오정세 배우와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세 살 터울의 동생이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책 내용 중에 ‘선로에 다섯 명의 사람이 묶여있다. 전차가 이대로 달린다면 다섯 명의 사람이 죽는다. 오른쪽 선로에는 한 명의 사람이 묶여있다. 전차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한 명이 죽는다. 당신 앞에 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안 돼! 112에 신고해야 해!”라고 답했어요. 이 대답이 교수님께 전달됐는데,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게 되었어요.

첼리스트님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모님이세요. 어느 곳이든 항상 같이 다녀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응원해주시거든요. 또, 저의 강력한 지원자는 세 살 터울의 동생입니다. 항상 제 눈높이에 맞게 함께해줘요. 그리고 러시아 첼리스트 로스트포비치도 있어요. 평소에 그의 연주 영상을 보며 연습을 해서 그런지 스승님 같아요. 마지막으로 첼로 지도 선생님들이세요. 지도요청을 드릴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시거든요.



그의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 김태영 씨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는 무엇인가요?

올해 목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장애인 연주가로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데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또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도 부지런히 참여할 거예요. 따로 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버스킹’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예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버스킹을 했는데 연주를 마치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기회가 닿는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국외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회사에 다니게 돼서 매일이 보람칩니다.” 현대모비스,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늘리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컨설팅을 진행해 장애인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여겼던 사내 인식을 바꾸고, 현대모비스가 추진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글 편집부 사진 김창제

미소를 짓고 있는 현대모비스 직원들



본사 6층 공용시설 관리자의 하루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앞 SI 타워. 현대모비스가 본사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커피 한 잔씩 손에 들고 사무실로 복귀할 때쯤 김태운 씨도 오후 출근을 서두른다. 사원증을 꺼내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옆에 있는 이들과 같은 회사원이라는 것이 실감 난다. 아는 얼굴이 보여 인사를 건네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순간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다.

6층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오늘의 할 일을 체크한다. 매일 반복하는 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 김태운 씨의 업무는 직원 라운지, 도서관, 교육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라운지의 비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도서관은 출납 관리와 장서 정리를 그때그때 해서 이용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크고 작은 회의 공간과 교육장들은 마이크, 프로젝터, 카메라 같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운영한다. 오늘은 몇 시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체크해서 알맞게 기기와 자리를 준비해 둔다. 교육이 끝나면 깔끔하게 뒷정리해서 다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자의 업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정리하고 있는 김태운 사원

현대모비스의 근로자 수 증가와 장애인 고용

공용시설을 전담 관리할 직원을 채용하자는 논의는 현대모비스가 장애인 고용을 다시 고민하면서 시작됐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시스템 솔루션, 모듈 등을 제조, 개발하는 기업이다. 자동차부품 매출 국내 1위, 세계 7위로, 2022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1만 1,000명 이상이다. 매출과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와중에 장애인 고용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회사의 큰 고민이었다.

현대모비스가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이유는 직원 비중이 큰 연구직, 기술직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지

원자가 적기 때문이다. 생산직 장애인 근로자는 안전 문제로 경증이 대부분이다. 구직수요가 많은 중증 및 발달 장애인 채용이 없다는 것도 현대모비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현대모비스는 기업경영에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했다.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바라보고,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채용브랜딩팀이 장애인 고용을 주도적으로 맡아 ESG 경영 전담부서와 함께 전략을 논의했다. 실천 방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했다.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채용브랜딩팀은 본사와 연구소 등 각 사업장에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사업부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구했다.



업무 상의 중인 김태운 사원과 유대희 근로지원인

중요 서류 배달 등 틈새 직무 발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활용해 문서 작업을 지원하는 사무 보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 및 연구 공간에 필요한 총무성 업무다. 총무성 업무는 공용시설 관리처럼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규정했다.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한 틈새 직무도 개발했다. 시험결과서나 기술도면 같은 비공개 자료를 연구소 동에서 동으로 직접 전달하는 업무다. 회사 내에서 밖으로 보내는 문서와 물품을 수거해 발송부서로 전달하는 일도 맡는다.

공단은 현대모비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채용공고만으로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단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모집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고용 훈련제도도 활용하도록 했다.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3주간 업무교육을 진행하고, 연구소 사무 보조의 경우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 순서, 방식을 상세히 적은 매뉴얼도 만들었다. 현대

모비스도 매뉴얼 제작과 수정, 직장생활 고충 상담 등 신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무에서 조직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회사에 확산시키고 있다. 채용브랜딩팀의 한수연 책임매니저는 “회사 여건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그간 ESG 경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많은 일을 해왔다. 의료기구와 생활용품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은 그 역사가 길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하는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는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장애인의 더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찬영 매니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잘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근해 훌륭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이고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태운 사원(청각장애)

“작년 9월부터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동차와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 예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큰 어려움은 없고 주어진 일을 스스로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유대희 근로지원인

“청각장애인인 김태운 씨와 다른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업종의 직무지도원도 오래 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알아서 하게 놔두는 곳이 적지 않았어요. 현대모비스는 인사담당자가 세심히 챙겨서 모든 장애인 근로자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땀의 정성이라면 땀뿜땀뿜해도 괜찮아요.”

전북지사 기업지원부 민희재 대리,
전북발달훈련센터 최희정 주임

연초라 각각 바쁜 상담 업무 와중에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된 민희재 대리와 최희정 주임.
한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가죽공방을 걸어 올라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다.
간만에 운동이라고 숨을 몰아쉬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 모두 웃음이 터져버린, 시작부터 유쾌한
만남이었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카드지갑을 만들기 위해 가죽 공방을 찾은 최희정 주임과 민희재 대리(왼쪽부터)

손때 탈수록 멋으로 빛나는 가죽지갑

오늘 두 사람이 만들게 될 오브제는 가죽 카드지갑이다. 사전에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 시원시원한 성정의 민희재 대리는 그에 걸맞은 짙은 파란색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최희정 주임은 다홍색을 골랐다. 취향저격 색상의 가죽들이 조각조각 재단되어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을 반기고 있었다. 오늘 사용할 메인 재료는 베지터블 가죽. 식물에서 채취한 원료로 무두질해서 시간이 지나 손때를 타면 중후한 색으로 바뀌는 멋이 매력인 가죽이다.

공방 선생님의 설명을 시작으로 가죽과 가죽 사이의 테두리 면을 본드로 붙이자 익숙한 카드지갑의 형태가 나타났다. 카드를 가로로 눕혀 넣고 다닐 수 있는 납작한 3단 카드지갑의 형태다. 외곽 면에서 2mm 안쪽으로 여유를 두고 선을 긋는다. 그 선에 맞춰 포크와 같이 생긴 그리프를 대고 망치질을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바늘구멍이 뚫렸다.

“자, 이제부터 가죽공예의 하이라이트 시작입니다”하는 공방 선생님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손엔 바늘이 쥐어졌다. 실 양 끝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바늘은 가죽 공예에서 자주 쓰이는 ‘새들 스티치’ 손바느질을 위한 준비물이었다. 구멍 하나에 두 개의 바늘이 교차하고 통과해 내구성을 높이는 손바느질. 최근에 떨어진 단추를 다느라 잡았던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오랜만에 바느질해본다는 두 사람. 서투른 마음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고 ‘바느질 명’을 누렸다.



한 구멍에 바늘을 교차하며 내구성을 높이는 새들 스티치 기법



완성한 카드지갑에 새긴 이름 이니셜 각인

한 땀의 정성, 한 땀의 깨달음

민희재 대리는 기업지원부에 근무한 지 7개월 차, 최희정 주임은 입사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차근차근 업력을 쌓고 있는 단계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바느질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업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졌다.

민희재 대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하면서 360여 가지가 넘는 보조공학기기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부에 여념이 없다. 대상자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연결해주는 일이 백사장에서 모래알 찾는 일처럼 어렵게 느껴지던 시기를 이제 갓 벗어났다. 최희정 주임은 연초라 발달장애인 보호자들로부터 직업체험 입학 문의를 자주 받는다. 입학 상담뿐만 아니라 정서 상담까지 진행하는 등 보호자의 입장에서 늘 고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뻑뻑한 가죽 구멍에 바늘을 넣으면서는 수월치 않았던 시간을, 시원하게 바늘을 빼면서는 성장한 나 자신을 돌아본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이제 손에 익으셨네요!” 하며 칭찬하자 두 사람 얼굴에 흐뭇함이 가득하다.

“바느질이 이 두 가죽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 일도 장애인과 사회를 단단히 잇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디게 성장한다고 걱정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땀 한 땀 자신의 몫을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위안을 얻어가네요.”

실을 양손으로 팽팽히 당기면서,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힌트를 얻은 듯 민희재 대리가 말했다. 최희정 주임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바느질을 마친 두 사람이 서로의 솜씨를 평가해보는 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뻥, 터진 두 사람은 뻑뻑뻑뻑한 손바느질에 남모를 동질감을 느껴본다. “이게 손바느질의 매력이지요”, “우리가 쓸 건데 뭐 어때요!” 하며 쿨하게 웃음 지어 보이는 두 사람 사이로 업무의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완성한 두 사람의 가죽 카드지갑

고민도 큐티클도 날려버리는 마무리 작업

손바느질이 끝난 이후엔 외곽면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전동사포로 테두리의 거친 표면을 정리하자 가죽 본래의 밝은색이 조금씩 드러났다. 단면이 한층 부드럽게 정돈된 후에는 끝이 살짝 갈라진 날카로운 칼로 외곽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카드지갑을 쓰다가 손이 베일 수도 있어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주는 작업이다. 마치 손톱의 큐티클을 정리하는 칼처럼 지나가는 구간마다 가죽이 얇은 실처럼 잘려져 나온다. 두 사람은 한층 부드러워진 외곽 면을 손으로 훑으며 놀라움을 공유했다. 이후엔 식물성 마감재인 ‘토코놀’을 손으로 고루 펴 바

른다. 버터 같기도, 코코넛 기름 같기도 한 토코놀이 가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표면이 깨끗하게 코팅되었다. 가장 마지막 작업은 각자의 카드지갑에 이니셜을 새기는 일이다. 각자의 영어이름 이니셜을 찾으려 눈과 손가락이 분주하다. 각인 기계에 활자를 넣고 꼭 찍어내자 가죽 카드지갑이 비로소 주인을 찾은 것처럼 흰해졌다. 본인 것을 들여다보다, 서로의 것을 바꿔 들여다보며 잘 만들었다 칭찬하는 두 사람은 각각 명함과 법인카드를 넣어두고 다니겠다고 용도를 밝혔다.

베지터블 가죽은 사용자의 유수분을 흡수하며 색상이 짙어지고, 깊어지길 반복한다고 한다. 광택과 색의 대비가 깊어지는 고색(Patina)을 경험할 수 있어 매일 새로운 카드지갑이 된다고. 오늘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도 더 깊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비록 땀땀하더라도 한 땀 한 땀의 정성으로 임한다면 두 사람의 내일은 완성도 있고 풍부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체험 소감 한마디



민희재 대리
전북지사 기업지원부

**바느질하듯 꼼꼼히,
꾸준히 나아갈게요!**

“오늘 가죽 공예를 하면서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야를 다른 각도로 바꿔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바느질하듯이 꾸준히 공부하고 묵묵히 해나가면 목표한 바가 선물처럼 얻어질 거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바심보다는 1인분을 해내는 사람으로서 올해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북지사에서 최희정 주임님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최희정 주임
전북발달훈련센터

**여러분의 완성을 돕는
안내자이길!**

“업무적으로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아 답답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저 못지않게 직업체험을 하는 장애인들과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도 비슷한 부분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곁에서 지치지 않고 한 땀 한 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종합 우승 7연패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 합동훈련 현장

지난 1월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합동훈련이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합동훈련은 한국의 종합 우승 7연패를 향한 마지막 담금질이다. 선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발적으로 훈련에 몰두하며 메달 획득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향

조용하지만 뜨거운 국가대표 합숙 현장

인천 부평구 구산동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ODA센터 건물 외벽에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합동훈련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선수들은 합동훈련 첫날에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가슴 벅찬 감동을 만끽하며 이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 낯설었던 공간에 꽤 익숙해진 지금도 훈련장과 기숙사를 오가며 아침저녁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수막은 여전히 감동을 준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면 맞은편 벽면을 가득 채운 대표팀 30인의 사진과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치열했던 예선을 뚫고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의 면면을 차례로 훑어본다.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와 살아온 길, 꿈과 사연이 제각각 다른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1층과 2층에 직종별 훈련실이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조용하면서도 은은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훈련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선수와 기술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논하는 듯 열중한 모습이 보인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임을 알리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오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출전국 종합 우승 6연패를 이어왔고 이번 대회에서 7연패의 위업에 도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기능 30개 직종과 기타 4개 직종에 34인의 선수 출전을 지원하며, 종합적인 우승전략을 수립하고 선수들의 훈련을 이끌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소속된 장소에서 개별 훈련을 진행했고, 1월 10일부터 출국 직전까지 11주간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국제 분쟁 등으로 7년 만에 열리게 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

상된다. 그만큼 선수단의 의지가 강하다. 특히, 마지막 11주의 합동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공단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우선, 직종별 전문가로서 국내외 대회 경험이 풍부한 기술위원이 소속훈련부터 합동훈련까지 선수를 일대일로 지도한다. 청각장애인 선수와 기술위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도 훈련에 참여한다.

합동훈련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후원 기업의 기술연수원, 연구소, 스튜디오 등 7개소에서 진행된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합숙소가 차려졌다. 기능 직종 30명의 선수 중 20명이 이곳에서 훈련한다. 이곳은 선수가 조용히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직종별 훈련실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와 식당은 선수들이 편하게 휴식하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공단 직원들은 재료 준비부터 간식까지 선수들의 모든 편의를 지원한다.



미용 직종의 전경수 선수가 기술위원과 함께 헤어 디자인을 상의하고 있다.



자전거조립 직종의 조정연 선수가 점수 비중이 가장 큰 바퀴 균형 맞추기를 반복해 연습하고 있다.

꺼지지 않는 불빛과 열정

선수들은 하루 12시간 가까운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합동훈련이 시작되고 첫 2주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본 훈련 시간이었고, 이후에는 밤 10시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지만 되도록 일정대로 훈련하도록 권장한다. 그래도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선수들이 있어 자정까지 훈련실을 개방하고 있다.

훈련소 2층에는 시각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직종 선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실이 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중 하나다. 오늘은 적당히 훈련하고 쉴까 하다가도 옆 선수가 남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리에 앉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시각디자인 직종에 출전하는 고성아 선수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2주에 한 번 집에 가기는 해도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보고 싶을 때가 많다.

고 선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훈련하는 분들이 많다. 공단 직원들도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며 애써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대부분 생업을 잠시 뒤로 하고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은 간절한 꿈을 품고,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훈련에 임한다. 미용 직종의 전경수 선수는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두 달 이상 매장을 닫게 돼 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 선수는 “존경하는 명장님처럼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 내 실력을 확인하고 성장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이익보다 중요하다”라고 대회에 참가하는 각오를 밝혔다.

자랑스러운 6연패의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다. 훈련소는 선수들이 고충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한다. 무엇보다,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수들은 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용기를 되찾는다.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보이자고 굳게 나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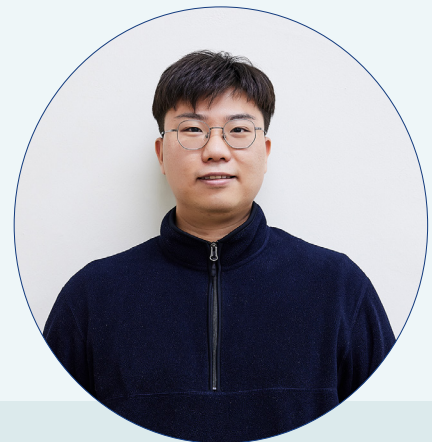
**조정연(시각장애),
자전거조립 국가대표**

“30년 넘게 자전거조립을 해왔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제가 최고령자로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엄기원(청각장애),
사진(실내) 국가대표**

“2016년에 캐릭터디자이너로 금메달을 땀고, 이번에는 직종을 바꿔 도전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울리는 것도 행복합니다. 올림픽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어 여기까지 왔으니 개인사 같은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훈련과 대회에 최대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명훈 수어통역사

“훈련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장애인의 실제 생활이나 고민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통역하면서 듣는 내용들, 사진 기법 같은 직종별 지식도 재미있습니다.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많아 저도 조금은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선수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메달을 따면 제가 탄 것처럼 기쁠 것 같습니다.”

개인이산제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립전환 대안을 찾아서 미국 장애인공동체 ‘캠프힐’에 가다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캠프힐’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이산제’를 도입했는데, 장애인의 개인 욕구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느껴지는 캠프힐 입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 ‘캠프힐’

‘탈시설’ 즉, 지역사회 자립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시설 논쟁은 오래된 담론이기도 하며 자국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대안적 성격의 지역사회 자립 전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중 캠프힐 공동체는 자기 결정권을 근간으로 자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뿐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 놀이와 치료가 유기적으로 순환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캠프힐은 ‘빌리지’라고 불리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하우스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 ‘코워커’,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부모 역할을 대신해 가사 일을 지원하는 ‘하우스패어런츠’가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캠프힐이 있다. 독일인 칼코니히에 의해 독일에서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을 피해 스코틀랜드 애버딘으로 이주하여 뿌리가 내려졌다. 이후 독일, 영국, 미국 등에 산재해있고 도시에도 있으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있다. 도시와 농수산 지역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캠프힐은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캠프힐은 분명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미래 대안임이 틀림없다. 사진 속의 공간으로만 보아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먼저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만들어진 생산물을 팔아야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장애인, 코디네이터, 패어런츠의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 ‘코팩 캠프힐’

미국에는 약 36여 개의 캠프힐이 존재한다. 오늘 소개할 코팩 캠프힐(Camp hill Village U.S.A., Copake, NY)은 그중 하나이며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을 구현하는 공동체이다. 코팩 캠프힐 마을 공동체 전체에서 약 230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95명이 발달장애인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코팩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캠프힐 공동체로서 뉴욕에서 북쪽으로 2시간여 걸리는 컬럼비아 카운티에 약 75만평 대지 위에 조성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뉴욕 주 정부 소속 발달장애인과(Th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자산 중 전체 50% 이상은 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나머지 50%는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분담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수당을 내어놓거나, 자신의 자산을 공여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재정으로 주거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선택한 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25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20개의 하우스(가구)로 나뉘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나의 하우스 내에는 약 5~8명의 발달장애인, 2~4명의 코워커, 2명 내외의 하우스패어런츠 등 약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캠프힐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내 다양한 일자리 때문이다. 이곳 작업장은 주로 농업과 관련이 있다. 총 9개의 기본 작업장이 있고, 각 작업장마다 전문적인 교육

과 트레이닝을 거친 숙련된 ‘워크마스터(Craft-masters 혹은 Work-leaders)’가 배치되어 발달장애인들, 코워커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캠프힐 작업장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발달장애인의 모습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각자의 희망과 역할에 따라 근로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시간별로 쉬는 시간을 보낸다. 단, 아침 작업이 필요한 축산농장의 경우 7시부터 근로가 시작된다. 또한, 각 근로 작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9개 작업장 외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돕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개인예산제, 장애인 복지의 미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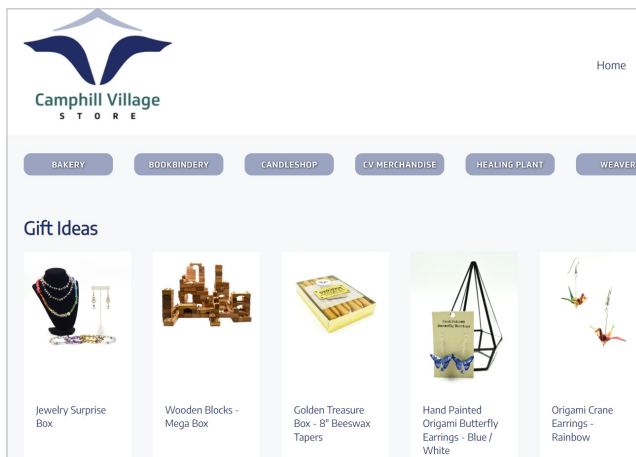
캠프힐은 특성상 장애인보다는 코디네이터, 코워커(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하다. 때론 장애인을 중심으로 봉사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마치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한 장면 같았다. 장애인근로자보다 종사자가 더 많이 생산에 참여하고 분주히 움직이며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을 올리는 풍경이라고나 할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의 봉사자들은 어느 면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재정을 통해 봉사자 수당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시설은 정부 재정을 통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에 고용된 종사자들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이고, 장애인이 고용한 종사자들이라는 차이에서 그들의 근본적인 인권과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존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시설은 도농산수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로 인해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러한 생각에 이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탈시설 논쟁에서도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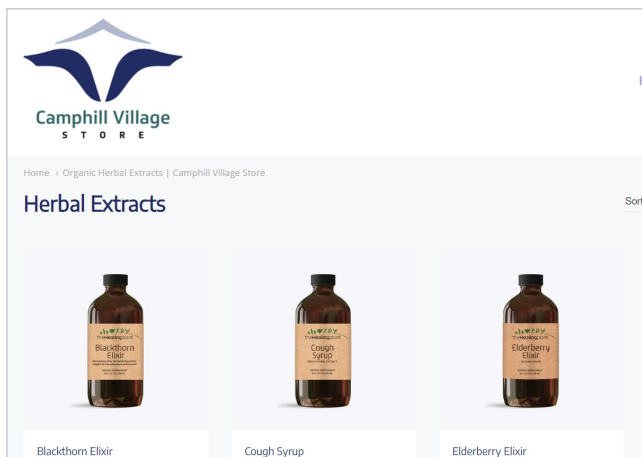
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탈시설은 요원하다.

특히 현대사회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개인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면 즉, 자신의 돈으로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자기 주도적 삶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이야말로 장애인의 주체적 삶과 자기 주도적 정체성을 확보, 탈시설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이른바 개인예산제(유럽형), 자기주도예산(미국) 등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 구매자로서 다양한 용역(활동지원), 재화(필요한 물건),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로 혁명(Revolution of Service system) 중이다. 캠프힐은 그렇게 장애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자기결정권을 발현할 수 있는 주체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미래 대안으로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된다. 더 이상 장애인의 주권이 에이전트를 통해 대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권리로 구현되어야 하며 종사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원하는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계가 장애인 복지를 향해 움직이는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소득을 안겨주는 장애인 고용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코팩 캠프힐의 생산품 판매 사이트 화면(악세서리 소품)



코팩 캠프힐의 생산품 판매 사이트 화면(의약품)



홈트가 더 재미있어지는 ‘운동구독 서비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홈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트니스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 홈트의 큰 매력이다. 홈트족이 늘면서 개인별 맞춤 운동을 안내하는 운동구독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구독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글 편집부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서비스

운동구독 서비스를 주도한 기업은 캐나다의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이다. 룰루레몬은 고가의 운동복을 팔기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커지자 이를 사업으로 확장했다. 디지털 거울을 이용한 홈트 서비스다. 이용자는 거울 속 강사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운동·명상 등을 따라 할 수 있다. 거울에 달린 카메라로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해 준다.

미국의 ‘펠로톤’은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 불린다. 펠로톤은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실내 자전거를 판매하고, 집에서 유명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 5만 원 수준의 멤버십 비용이 마냥 저렴하지는 않지만, 덩치 크고 비싼 옷걸이로 전락하기 쉬운 실내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애플은 ‘애플워치’ 기반의 운동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명상, 인터벌 트레이닝, 요가, 코어 운동 등 10여 개의 운동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운동법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가 소개하는 운동 에피소드, 트레이너와 게스트가 함께하는 운동 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애플워치와 연동해 운동량을 측정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며 자신의 운동 수준을 점검하는 등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동구독 서비스의 만족도는 콘텐츠의 질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비싼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하면서 실망한 적이 있다면, 비대면이라도 낮은 비용으로 유명 강사에게 배울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콧트는 월 1만 9,800원으로 다수의 스타 코치가 참여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독자의 체형, 목표, 시간 등을 고려해 맞춤으로 운동 일정을 제시하고 관리해주며 다른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장애인의 운동 경험과 사회적 교류

운동구독 서비스의 커뮤니티 기능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홈트의 단점을 보완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확인하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어댑핏’은 서울과 부산에 지점을 둔 배리어프리 헬스케어센터인데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댑핏 앱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한다. 장애 유형과 질환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트레이너가 이용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운동 방법과 식단을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다른 이용자와 운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는 커뮤니티를 운영해 집에서 운동하면서도 타인과 교류하는 사회적 경험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벤처기업 ‘캠스터즈’는 휠체어 사용자가 숨 가쁜 유산소 운동의 재미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휠체어 그대로 올라가 운동할 수 있는 트레드밀과 전용 콘텐츠로 구성된 휠리엑스다. 필라테스, 요가, 에어로빅, 스피닝 등 다양한 운동을 지원하며 전용 앱을 이용해 운동량도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보며 마치 게임을 하듯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배리어프리 운동구독 서비스 어댑핏이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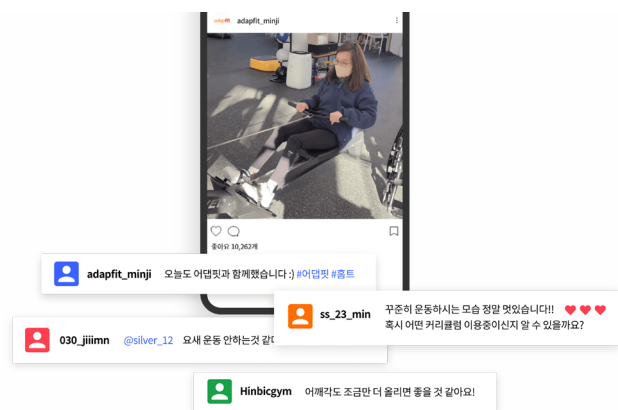


사진. 어댑핏 홈페이지

열린관광지, 용인 한국민속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속으로

전국에는 여러 개의 민속촌이 있다. 그러나 민속촌 대부분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관광약자들이 다니기에 결코 쉽지 않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은 다르다.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열린관광지로 선정할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고루 갖췄다. 슬슬 봄 내음 풍기기 시작한 용인 한국민속촌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한국의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통가옥

한국민속촌은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보기에 좋은 곳이다. 민속촌 내부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각 지역별, 계층별 전통가옥을 실제 모습대로 재현해놓은 민가마을이 가장 먼저 반겨준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지역별 전통가옥의 특성들을 실제 볼 수 있어 유익하다. 외양간에는 실제 살아있는 소가 눈을 크게 뜨고 반겨주기도 하니 흠칫 놀라는 관광객들을 보는 재미도 있다.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양반가

민가마을을 지나면 실제 양반들이 살던 가옥을 재현해놓은 양반가가 보인다. 이 양반가는 실제 수원성 안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 하니 실제 옛사람들의 온기가 묻어있는 듯하다. 양반가의 마당에서는 매일 오후 12시와 4시에

전통혼례식을 재현하고 있다. 옛 양반가의 혼례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 생생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금강산도 식후경, 다양한 장터음식점

흔히 조선시대 사극에서 많이 보던 서민들이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 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야외 장터로 꾸며진 곳인데 흙바닥에 나무로 짜인 테이블과 의자들이 쪽 늘어서 있다. 메뉴는 그 옛날 장터에서 팔 법한 장터국밥, 각종 전, 막걸리, 식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촌을 만나질 정도 구경하고 슬슬 허기가 찾아올 때 잠시 쉬며 허기를 달래기에 좋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곳

한국민속촌에는 전통가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다. 설날과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 명절에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행사들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고 항상 전통 민속극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또 천연 염색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열린관광지

한국민속촌은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열린관광지로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내부 시설이 평지라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관광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다. 건물의 높이가 높은 양반가나 관아에도 완만하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한옥의 구조상 필연적인 툇에도 경사로를 설치해두어 건물 가까이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와 외부에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도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다. 입구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팸플릿도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매표소 오른쪽 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안내판도 마련되어 있다.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 문의 031-288-0000
- 이용시간 평일 10:00~18:30 / 금, 토, 일, 공휴일 10:00~21:30
(날씨 상황에 따라 개폐장 시간에 변동 있을 수 있음)
- 이용요금 이용요금 : (휴무일 없음)
주간 - 성인, 청소년 32,000원 / 아동 26,000원 / 경로, 장애인 22,000원
야간 - 성인, 청소년 25,000원 / 아동 22,000원 / 경로, 장애인 20,000원
(야간 요금은 16:00~21:30, 2022년 야간 운영기간은 4월 9일~11월 6일)

알쏭달쏭 직장생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3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과 고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
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독자 의견에 남기기



Q.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사정상 1년만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회사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해야 할까요? 얘기하고 나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서상의 기간보다 먼저 퇴사를 요구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A. 개인 형편상 회사와 재계약을 못 하는데 그 사실을 회사에 말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염려하셨군요. 답을 드리자면 정규직 근로자는 적어도 퇴사예정일 30일 이전에 회사 측에 사직 의사를 통보해야 할 민법상 의무가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다른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15일 전에는 회사 측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회사 측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퇴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해고의사표시나 해고 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50대 경증 지체장애인이며 자산관리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계약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수록 마음이 상하는 점이 있는데 저만 성과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직 근로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걸까요? 또 신고할 경우 5년간 받지 못했던 성과급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로부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다 느끼셨으니 그동안 심적으로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측에 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사 측에서는 비장애인 계약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1일 5시간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장애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 상담자님의 경우,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들과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 측에 구체적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시간근로자 차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낼 수 있으나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 중증 지적장애인인 제 여동생은 세탁공장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돼 한 달 반을 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회사에서는 동생의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어째서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A. 동생분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건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셨군요. 여동생분이 든든한 오빠분을 두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동생분의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먼저 그쪽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동생분의 상황은 산재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으며, 혹여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비,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요양 종료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분들 모두 직장에서 주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 다치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맵찔이 #점심메뉴추천 #JMT

스트레스를 받을 땐 매운 음식이 최고죠! 본부 근처에 있는 주꾸미 맛집에 가서 땀을 뿜뿜 흘리면서 점심을 먹으니 좋더라고요! 독자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음식을 먹고 훨훨 털어내세요.

양은영 과장, 공단 소통협력실



#북한산자락길 #배리어프리 #생태숲길 #등산

제가 자주 가는 ‘북한산 생태숲, 무장애 숲길’입니다. 5살 딸아이와 70세 노모랑 함께 가도 무리가 없어요. 낮은 경사도와 장벽 없는 길 그리고 푸른 자연과 산새 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인 곳이죠.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즐기는 장애인분들도 자주 뵈고는 합니다. 봄도 되었고 하니 많은 이동 약자 분들도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셨으면 해요. 또 이동 약자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답고 멋진 산 풍경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한 배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희 님



#대구지역본부 #취성패7공주 #웰컴투취성패 #영원히함께해 #퇴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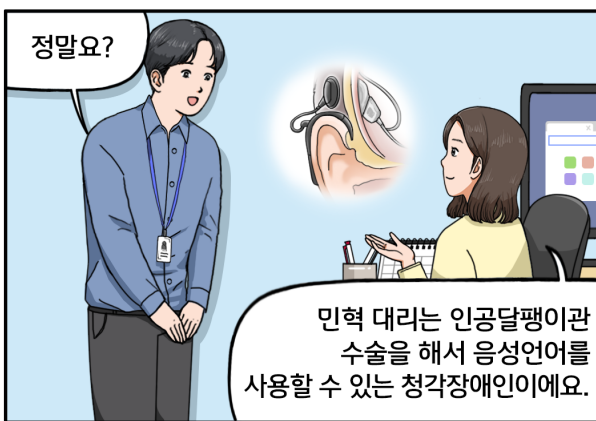
1년 동안 인턴으로 열심히 일한 민지 선생님이 우리 본부의 정식 식구가 되어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두 배로 따뜻한 하루였지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금도 우린 여전히 사진 속의 모습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년 후,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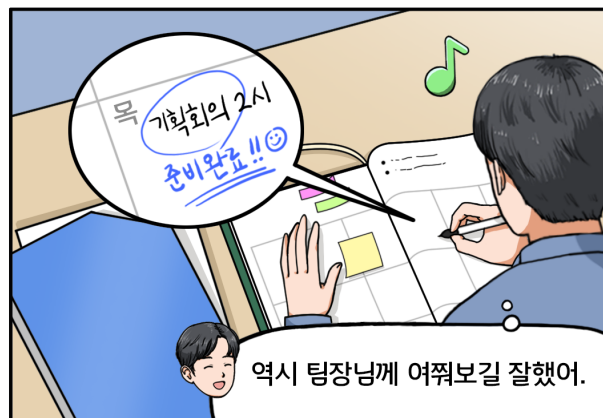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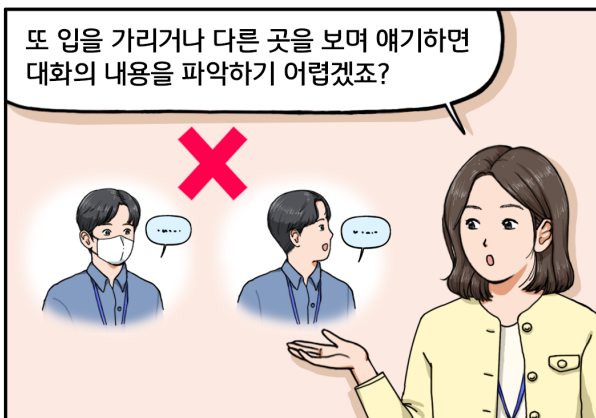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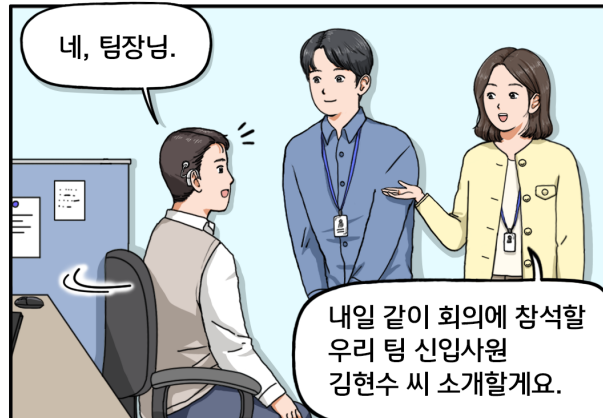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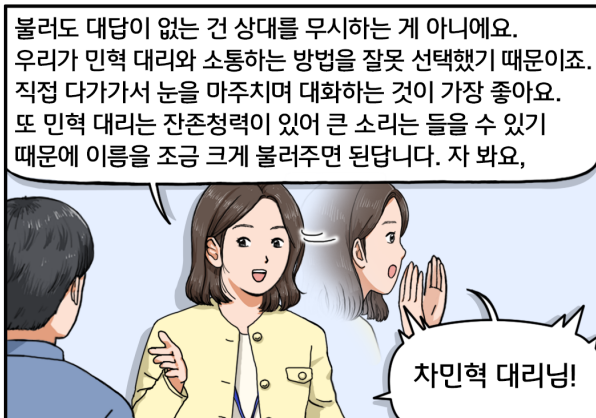
이유진 주임, 공단 대구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청각장애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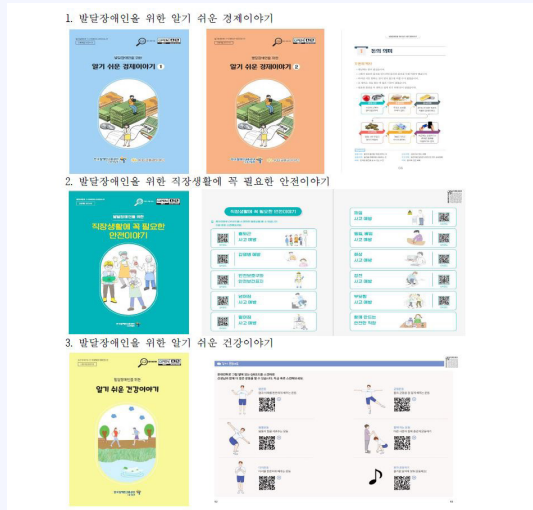
그림 권도연





KEAD 뉴스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자료 3종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고용정보를 스스로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고용정보 3종을 개발했다. 발달장애인에게 취업 준비부터 고용 유지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 주기별로 개발하고, 문해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 삽화 등을 넣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했다. 알기 쉬운 자료 3종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개발되었고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로도 전환해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는 금융 전문기관인 KB금융공익재단과 협업하여 개발했다. 총 2권의 책자로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자료 제작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감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료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번에 개발된 알기 쉬운 자료 3종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자료실에서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고용개발원(실용연구부)으로 요청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MOU) 체결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지난 2월 2일(목),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인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 예술인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3년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